

“준우승 신화 재현”...약속의 땅 오키나와 입성

WBC 대표팀 훈련지 담글질 시작...23일까지 3차례 평가전

김인식 감독 “새 선수들과 전력 이외의 ‘무언가’ 만들겠다”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선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했다. 이제 훈련에 전념할 때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2일 낮 오키나와현 나하 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전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 모인 선수 21명은 정장 차림으로 입국했다.

오키나와에서 소속팀 스프링캠프를 치른 최형우, 양현종, 임창용(이상 KIA 타이거즈), 김태권, 이용규(이상 한화 이글스) 등 5명은 12일 오전 온나손에 있는 대표팀 숙소로 이동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인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는 17일 오키나와에 도착한다. WBC 대표팀의 유일한 현역 메이저리거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은 2월 말 한국으로 돌아와 고척 스카이돔 평가전부터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계획이다.

오키나와는 많은 한국 프로야구팀이 스프링캠프를 차려 국내 팬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하지만 WBC 대표팀이 오키나와에서 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1회 대회를 앞두고는 후쿠오카와 도쿄에서 훈련했고, 2009년에는 하와이, 2013년에는 대만 타이중에서 합숙 훈련을 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3월 6일부터 A조 예선을 치르는 대표팀은 한국과 가깝고 훈련 환경을 갖춘 곳을 전지훈련지로 택하고자 했다. 마침 SK 와이번스가 오키나와 훈련 때 홈 구장으로 쓰는 우루마시 구시카와 구장이 2월 중순에 비어 있는 상태였다. KBO는 대표팀과 논의해 오키나와를 전지훈련지로 택했다.

대표팀은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23일까지 전지훈련을 한다. 18일까지는 선수들 손발 맞추기에 주력한다. 이어 19일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나하

셀러라 스타디움), 21일 LG 트윈스 퓨처스팀(구시카와 구장), 22일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기노와 구장)와 총 3차례 평가전을 하며 투수 보직과 타순의 틀을 잡을 계획이다.

김인식 감독은 “짧은 훈련 기간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회 개막에 맞춰 몸을 잘 만들고, 전략을 짜는 게 목표”라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대회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WBC 대표팀은 역대 최악체로 꼽힌다. 하지만 김인식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고 2006년 4강, 2009년 준우승 신화를 이룰 때도 대회 직전까지는 약세가 있었다. “한국 대표팀에는 전력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고 떠올린 김 감독은 “새롭게 뽑힌(손아섭, 박건우, 오재원 등) 선수들의 의욕이 매우 강하다. 이 선수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2017년 WBC에서도 김 감독은 ‘무언가’를 발휘하고 싶어한다. 오키나와 훈련은 그 출발점이다. /연합뉴스



2017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 김인식(오른쪽) 감독과 선동열 코치가 12일 오후 전지 훈련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해,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WBC대표팀 주장에 두산 김재호 선수

김재호(32·두산 베어스·사진)가 야구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낙점됐다.

김인식(70) 대표팀 감독은 12일 “김재호한테 주장을 맡기기로 어제 저녁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표팀 안팎에서는 ‘4번 타자’이자 일본, 미국프로야구를 두루 경험한 이대호(35·롯데 자이언츠)가 주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김 감독은 “그동안 정근우나 이대호 등

고참 선수가 많이 맡았는데, 이번에 정근우는(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졌고 이대호는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줘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규, 김재호 얘기가 많이 나왔다. 코치진 논의 결과 김재호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격수인 김재호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두산의 주장도 맡고 있다.

그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김재호가 이끈 두



산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통합 우승도 일켰다.

김재호와 두산에서 한 술밥을 먹는 선발투수 장원준(32)은

“사실(이)대호 형이 주장을 맡을 줄 알았다”며 “재호는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내달 18·19일 조선이공대서 야구기록 강습회 선착순 60명 모집

‘기록의 스포츠’ 야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배우의 장이 광주에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야구협회(GBA)와 한국야구 기록연구회(KBR)가 3월18일과 19일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야구기록강습회를 연다.

지난 2011년 지역에서는 처음 야구기록 강제로 한 강의가 열린 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강습회는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 야구 꿈나무들과 학부모 20명, 일반인 40명 등 6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야구협회에 소

속된 학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교재와 기록지가 제공되며 강의를 이수할 경우 수료증이 수여된다. 매월 1회, 총 6회 이상 현장 기록에 참여한 수료자에게는 생활체육 및 학생 야구 현장 기록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강습회는 광주시야구협회 나훈 회장의 ‘야구 매가 광주야구발전사’ 강의로 시작되며, 김재호 회장 등 KBR 관계자 등이 강사로 나서 야구의 역사와 규칙, 규약 및

용어, 야구 기록법 등을 설명한다. 강의 둘째 날인 19일에는 프로야구 시범경기 중계를 보면서 직접 야구 기록을 해보고 이를 평가하는 시간도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viva-sports.co.kr·KBR소개→행사안내), 이메일(yonara77@naver.com), 전화(광주시 야구협회 062-375-8600)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강습회는 광주일보, CMB, KIA 타이거즈, 조선이공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



스피드스케이팅 황제의 질주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2018 평창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00m 경기에서 네덜란드의 �벤 크라머가 빙판을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순초교 ‘겨울스포츠 신흥 명가’ 발돋움

전국동계체육대회 금2·은4·동1 등 메달 7개 획득

화순초교가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전남의 ‘겨울스포츠 신흥 명가’로 발돋움할 태세다. 최근 폐막한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따는 성과를 올린 면서다. 전남체육회는 우수 선수들이 전남에서 꾸준히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동계스포츠 육성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화순초교 선수들은 제 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9~12일)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재근(10·화순초 3년)이 피겨 스케이트 남자 초등부 싱글 D조 경기에서 시상대 맨 위에 오른 데 이어 최희연(여·12·화순초교 5년)도 크로스컨트리 여자 초등부 클래식 3km 부문 금메달 레이스

를 펼쳤다. 화순초교 남녀스키팀은 또 크로스컨트리 부문에서만 은메달 4개를 거둬들이는 등 전남 전체 은메달(6개)의 절반 이상을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전남에서 일궈낸 기록같은 성과로, 전남이 지난해보다 올라간 성적(9위)을 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수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스포츠팀이 없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선수 육성 정책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광주선수단은 이번 동계체육대회에서 11위, 전남은 9위의 성적을 올렸다. 경기도는 16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동계체전 金 김마그너스 “일반부 와보니 알짬없네예”

성인 대회 첫 출전...크로스컨트리 남자 일반부 프리 15km 우승

“성인 경기 뛰어나니까 알짬없네예.”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김마그너스(19·사진)가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얘기했다.

김마그너스는 지난 11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의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열린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 남자 일반부 프리 15k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8분 48초 4의 성적을 낸 김마그너스는 2위 황준호(24·하이원)를 34.

7초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2015년 전국체전에는 고등부에 출전했던 김마그너스는 올해 대회부터 일반부에서 경쟁한다. 전날 열린 클래식 10km에서도 금메달이 유력하다는 평을 들었던 김마그너스는 황준호에게 1위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다.

이날 경기가 끝난 뒤 만난 김마그너스는 “일반부에서는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짬없더라”고 답

한 것이다.

그는 “사실 일반부 경기도 계속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어제는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아서 중반 이후로 페이스가 떨어졌다”고 자책했다.

김마그너스는 지난주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감기 몸살에 걸리는 바람에 불참했다.

김마그너스는 “대회 개막 사흘 전에 감기에 걸렸는데 사실 그 대회를 1년간 준비한 것이어서 매우 아쉬웠고, 힘들었고, 슬



팠다”며 “경기 감각도 떨어져서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다. 사포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컨디션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12일까지 체전을 뒤고 16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그는 아시안게임을 마친 뒤 국내로 들어와다가 3월 초에 노르웨이로 떠날 예정이다. 이후 유럽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노아름·이효빈·황대현 쇼트트랙 월드컵 6차대회 金

한국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 첫날부터 ‘금빛 환호성’을 질렀다.

노아름(전북도청)은 12일(한국시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40초818의 기록을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 열린 남자 1500m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금·은·동을 모두 휩쓸었다.

이효빈(서울시청)이 결승에서 2분25초760의 기록으로 홍경환(서현고·2분25초843)을 0.083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한 가운데 임용진(경희대·2분25초899)은 3위를 차지했다.

‘금빛 바통’은 1000m 1차 레이스에 나선 황대현(부흥고)이 이어받았다.

황대현은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1분25초800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광양시청 불링 최복음·박종우·유지훈·신승현 ‘태극마크’

4명의 광양시청 불링 선수들이 한꺼번에 태극 마크를 달았다. 조영선(32·광주시체육회)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12일 광주·전남체육회에 따르면 최복음(30·광양시청)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 호계 불링경기장에서 열린 ‘2017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1위(234.6점)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최복음을 비롯, 광양시청 동료들인 박종우(27·4위)·유지훈(27·6위)·신승현(28·11위)도 이번 선발대회를 거쳐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다. 광양시청 소속 6명의 선수 중 4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영선도 12위(225.1점)에 올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지우기자 dok2000@